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4, pp. 1119-1147.

<https://doi.org/10.15753/aje.2019.12.20.4.1119>

#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선곡유화(船谷由花)\*  
서우석(徐雨錫)\*\*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메타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누리미디어, 코리아스칼라, 학술교육원, 한국학술정보 등)를 통합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국내 학위논문(2편)과 학술지 논문(9편), 총 11편이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진로중재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Hedges'  $g = -1.023$ (95% CI:  $-1.642 \sim -.403$ ),  $U_s = 84\%$ 로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의 효과크기가 약 34%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성공률에 대한 비교는 통제집단이 27%에 비해 실험집단은 72%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성공률이 확연히 높은 것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감소에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큰 것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하였고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로중재프로그램, 진로교육, 진로상담, 대학생, 진로장벽, 메타분석

\* 제1저자, 경인교육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sws@ginue.ac.kr](mailto:sws@ginue.ac.kr)

## 1. 서론

대학 시기에는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기반으로 진로탐색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현실적 요건들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적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Havighurst, 1972; Super, 1957).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시기의 진로발달에 맞는 진로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손승연, 이종연, 2017). 이로 인해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대학입학과 함께 시작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박유리, 안세영, 최보영, 2017).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sup>1)</sup>은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손강숙, 정소미, 2019; 이지은, 이제경, 2015). 게다가 세계화, 다문화화, 4차 산업 환경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경제 침체로 인한 취업난 등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압박감은 높아지고 진로고민은 해마다 깊어지며, 그로 인해 대학생의 진로개발은 저해되고 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 이와 같은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바로 대학생들이 지각하게 되는 진로장벽들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장벽이란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그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심리적, 환경적 장애 요인들(Swanson & Woitke, 1997)로 그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홍지선, 계은경, 2016; Albert & Luzzo, 1999).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진로선택을 제한시키고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변인으로 밝혀져 있다(조경주, 2018; 하정, 2018).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할 때, 지각하게 되는 직업세계에서의 제약과 방해요소인 진로장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진로교육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은 개인이 가진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설계하여 개인에게 성취감과 자기주도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촉구하고 합리적 진로선택을 돕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그 효과도 검증되어 왔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그 유형은 진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 상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분류에 기초해서 선곡유화와 서우석(2019)은 청소년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한

1) 이 연구에서 대학생은 진로교육법 제 14 조(대학의 진로교육) 중,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이하 “대학생”으로 칭하고자 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 www.law.go.kr/](http://www.law.go.kr/)).

메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경험적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감소를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가운데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진로중재프로그램(career intervention program)으로 칭하고자 한다. 진로중재프로그램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교육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 동안 대학생의 진로교육 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예컨대, 취업전략 프로그램(이정민, 2011), 진로와 창업 프로그램(김수란, 정미경, 2014), 진로개발 프로그램(최미정, 2017) 등을 실시한 후,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한편, 진로 집단상담 중재프로그램에는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은희, 김봉환, 2009), 진로장벽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중운, 박성실, 2010), 진로장벽 대처 역량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하정, 2018) 등 여대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모두 진로장벽 감소에 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회인지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손애라, 유순화, 윤경미, 2011), 벤처창업 진로상담 프로그램(정운경, 변상해, 2014) 등 역시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일관성 있게 검증되어 왔으나 연구 결과만으로 대학생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적된 선행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연구 대상의 표본 크기, 중재프로그램의 내용과 개입방법 및 측정도구 등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효과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의 일반화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메타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란, ‘분석들의 분석(Green & Hall, 1984)’으로 불리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동일한 주제의 연구결과물을 선정하고 각 연구의 개별 결과물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 통합하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Littell, Corcoran & Pillai, 2008). 지금까지 선행된 진로중재프로그램 관련 메타분석은 대학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중재변인별 효과검증 메타분석(전미영, 2013), 대학 진로 교과목의 효과검증 메타분석(김기현, 2015), 대학생 대상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서의 효과검증 메타분석(손강숙, 정소미, 2019) 등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는 아직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는 메타분석을 통해 최근에 밝혀진 바 있다(선곡유화, 서우석, 2019). 하지만 청소년 시기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생의 결과를 대학생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진로장벽에서의 효

과크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물을 수량적으로 통합하고 일반화하는 근거중심의 메타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종속변인으로 수행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일 경우, 그 이질성은 어떠한 조절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간오류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진로장벽

일반적으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지각되는 모든 방해요소들을 포괄해서 칭하는 용어로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Crites(1969)는 진로장벽을 진로발달 과정을 방해하고 위협을 주는 내적, 외적 조건의 이분법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내적 장벽은 자신감 부족이나 미흡한 성취동기 등 심리적 어려움을 의미하고 외적 장벽은 환경에서 지각되는 요인들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설명된다(McWhirter, 1997). 또한 Swanson과 Tokar(1991)는 대학생의 진로장벽 요소를 사회적·대인적 장벽(지금의 가족, 장래 결혼, 가족계획 등), 태도장벽(자기개념, 흥미, 직업 태도 등), 상호작용 장벽(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어려움, 직업 준비, 직업 환경에 대한 준비 등)의 삼분법으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을 고안한 Lent와 동료들(1994)은 진로장벽을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으로 보고 개인의 성향과 내적 요인에 주목하기보다 개인의 주변 환경요인에서 지각되는 방해물들에 치중하는 협의의 개념을 취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이분법, 삼분법 또는 협의 개념에서는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다양한 진로장벽들을 포괄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다 다원적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예, Swanson & Daniels, 1995; Swanson et al., 1996; Swanson & Woitke, 1997 등)은 현장 면담을 통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개인의 진로발달 단계, 개인적 성향, 환경적, 맥락적 차이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세분화하고 개념화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차원적 개념을 취한 손

은령(2001)은 진로장벽을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주고 관련 진로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부정적 사건으로 정의하고 여대생용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 진로 관련 연구의 경험적 근거로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로 개발된 측정도구의 다수가 역시 다차원적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예, 김은영, 2001;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탁진국, 이기학, 2001 등).

특히, 대학생 대상의 국내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차원적 측정이 대세이며, 그 가운데 대표적 도구에는 여대생용 진로장벽검사(손은령, 2001), 진로탐색 장애검사(김은영, 2001), 진로결정 장애검사(탁진국, 이기학, 2001) 등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포함된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국내 대학생용 진로장벽 측정도구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수/전체 $\alpha$	분석 대상 문헌
여대생용 진로장벽검사 (손은령, 2001)	1) 차별, 2)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 3) 다중역할 갈등, 4)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5)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6) 여성취업 고정관념	57 / .94( $\alpha$ )	김봉환 (2007)
		32 / .93( $\alpha$ )	김은희, 김봉환 (2009)
		32 / .87( $\alpha$ )	하정 (2018)
한국대학생용 진로탐색 장애검사 (김은영, 2001)	1) 자기명확성 부족, 2) 대인관계 어려움, 3) 직업정보부족, 4) 중요타인과의 갈등, 5) 흥미부족, 6) 미래불안, 7) 경제적 어려움, 8) 신체적 열등감, 9) 나이 문제	45 / .85( $\alpha$ )	김중운, 박성실 (2010)
		45 / .93( $\alpha$ )	이정민 (2011)
		45 / .94( $\alpha$ )	권은경 (2013)
		45 / .83( $\alpha$ )	정운경, 변상해 (2014)
진로결정 장애검사 (탁진국, 이기학, 2001)	1) 직업정보 부족, 2) 자기명확성 부족, 3) 우유부단한 성격, 4) 필요성인식 부족, 5) 외적장애, 6) 사회인식 부족	24 / .88( $\alpha$ )	손애라 외 (2011)
	1) 직업정보 부족, 2) 자기명확성 부족, 3) 우유부단한 성격, 4) 필요성인식 부족, 5) 외적 장애	22 / .93( $\alpha$ )	김수란, 정미경 (2014)
진로장애검사 (김수현, 2007)	심리적 장애요인: 1) 직업정보 부족, 2) 자기진로 이해 부족, 3) 자신감 부족과 성격문제, 4) 취업의 현실여건 환경적 장애요인: 1) 취업기반 부족, 2) 학벌과 전공, 3) 나이와 신체조건, 4) 경비와 집안사정, 5) 부모와 주변인 문제	30 / .91( $\alpha$ )	김수현 (2010)

각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여대생용 진로장벽검사(손은령, 2001)는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 다중역할 갈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여성취업 고정관념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진로탐색 장애검사(김은영, 2001)는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중요타인과의 갈등, 흥미 부족, 미래불안,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 나이 문제의 9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진로결정 장애검사(탁진국, 이기학, 2001)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애, 사회인식 부족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진로장애검사(김수현, 2007)는 심리적 장애요인(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과 성격 문제, 취업의 현실여건) 4가지와 환경적 장애요인(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 문제) 5가지 총 9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분석 대상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22~57문항이었고 응답방식은 모두 리커트식 척도가 활용되었으며, 채점방식은 모두 하위영역과 전체점수를 합하여 분석되었고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83~.9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 2. 대학생의 진로중재프로그램

대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교육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기관(교육부, 2012/2014; 한국고용정보원, 2004/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등)의 진로 교과목의 내용체계를 토대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각 기관 간에서 일관성 있게 중시하고 있는 자기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 계획, 진로 준비, 진로 관리로 구성하였고 그 외 각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 내용은 따로 기타 항목에 기술하고 비교하였다(〈표 2〉 참조).

우선, 교육적 방법으로 수행된 진로교육 중재프로그램 연구는 주로 교양과목에서 개설된 진로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컨대, 이정민(2011)이 개발한 '취업전략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직업세계탐색, 직업과 직장(유망직업 알아보기), 성공취업 전략 수립, 입사지원서 작성법, 취업전략, 직업가치관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능력개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75명의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김수란과 정미경(2014)이 개발한 '진로와 창업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성격, 흥미, 다중지능), 직업세계 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진로준비, 직업능력의 함양 등이 포함되었고 75명의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 개발된 최미정(2017)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꿈 목록 만들기, 이력서 작성방법, 면접 대비 방법, 취업전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56명의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후반기에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구성으로 더욱 실용적인 점이

주목된다.

<표 2> 대학생의 진로중재프로그램

저 자	교육 명	하 위 내 용									
		1	2	3	4	5	6	7	8		
이정민 (2011)	취업전략	○	○	○		○	○	○	○	직업능력개발	
김수란, 정미경 (2014)	교육	진로와 창업	○	○		○	○	○	○	다중지능 이해, 창의적 사고 함양	
최미정 (2017)		진로개발 프로그램	○		○			○	○	○	리더십 강화, 취업 역량 강화
김봉환 (2007)	집단 진로상담프로그램	○	○	○					○	진로장애의 이해	
김은희, 김봉환 (2009)	진로장애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진로장애인식	
김수현 (2010)	진로장애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심리적 장애 이해, 장애 문제해결	
김종운, 박성실 (2010)	상담	진로장애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진로장애 탐색 및 해결방안 모색	
손애라, 외 (2011)		사회인지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직장여성으로서의 어려움 및 극복방안
권은경 (2013)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	○	○	○	○				진로의 흥미, 특성, 가치, 장애 탐색	
정운경, 변상해 (2014)	벤처창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	○	○			○	진로장애 확인	
하정 (2018)	진로장애대처 역량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성인식, 장애 파악-대처법, 지지체계, 대인관계 갈등대처

주) 국가교육기관(교육부, 2012/2014; 한국고용정보원, 2004/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등)의 진로 교과목 내용체계를 기반으로 이 연구팀이 재구성한 분석틀임; 1 자기이해, 2 직업 세계의 이해, 3 진로 탐색, 4 진로의 사결정, 5 진로 계획, 6 진로 준비, 7 진로 관리, 8 기타

반면, 집단상담 방법을 도입하여 진로중재연구의 효과를 대학생의 진로장애 감소를 통해 검증한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여대생 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예컨대, 김은희와 김봉환(2009)이 개발한 ‘진로장애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역할 갈등, 진로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자신의 꿈을 이룰 준비, 진로장애 인식, 진로성숙 등의 구성으로 88명의 여대생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김종운과 박성실(2010)이 개발한 ‘진로장애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는 자기탐색, 직업적 고정관념 타파, 직업적성 및 희망직업 탐색, 진로목표 수립하기, 취업을 위한 실제적 행동 준비, 진로장애 탐색, 진로장애 해결방안 모색 등이 포함되었고 10명의 여대생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손애라 외(2011)가 개발한 ‘사회인지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

램'은 자아탐색, 진로탐색(전공분야탐색, 전공직업탐색, 전공 외 직업탐색), 진로목표 설정,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 형성, 직장여성으로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2명의 여대생 대상으로 수행된 바 있다.

한편, 하정(2018)의 연구에서는 8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대처 역량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장벽에 나타나는 효과만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 돌보기, 조직과 적응, 직급과 직무역량, 일과 가족 양립, 대인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지각되는 장벽들에 대한 대응능력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들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벽들을 미리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개발하는 내용까지 내포하고 있는 구성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정운경과 변상해(2014)가 개발한 '벤처창업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자기탐색, 진로장벽 확인, 진로탐색, 취업진로선택, 진로계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상으로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을 감소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은 유형과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나 모두 진로교육 목적에 기초 하여 개발되고 운영되었다는 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교육적 접근법에 비해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내용이 좀 더 진로장벽 지각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충실히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집단 상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집단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신념과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Brown, 1985; Ellis, 2000). 그로 인해 자기를 통찰하고 보다 객관적 자기이해를 가능케 하여, 진로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촉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방안(Corey, 2005; Wessler, 1986)으로 진로장벽 극복에도 효과적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선행연구 고찰

메타분석이란 유사한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계량적 효과크기(effect size: 이하 ES로 표기함) 결과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연구의 비뚤림(bias)이나 확률적 오차(random error) 등을 줄이고 과학적 전략을 적용하여 예리한 평가가 가능한 연구방법이다(신우종, 2015). 즉, 각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의 평균 차를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각 중재법 가중치의 평균 요약 추정치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로 종합적 결론을 얻는 분석기법이다. 메타분석은 전체 과정의 재현이 가능하고 대상 연구들을 모두 합하고 정밀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우리나라 진로교육 관련 연구 혁신과 개선에 매우 높은 기여도가 기대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로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대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 관련 메타분석(예, 김희은, 이미현, 김인규, 2014; 손강숙, 정소미, 2019 등), 진로장벽 관련 메타분석 등 지속적으로 선행되어 왔다(예, 조경주, 2018; 조영아, 정지은, 2017 등). 예컨대, 김희은 외(2014)는 대학생 대상의 집단상



담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총 97편의 결과를 메타분석 하고 전체 효과크기( $ES = .97$ )를 검증하였다. 특히, 주제와 목표가 진로와 관련이 있을 때, 보다 효과크기가 큰 것을 확증하였다(진로 주제의  $ES = 1.19$ , 진로 목표의  $ES = 1.21$ ). 그리고 전미영(2013)은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총 40편을 메타분석 한 결과, 전체 효과크기가 큰 것을 입증하였다( $ES = .80$ ). 그리고 종속변인 별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S = .834$ ), 진로정체감( $ES = .797$ ), 진로결정수준( $ES = .794$ ), 진로준비행동( $ES = .784$ )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을 밝혔으나 진로장벽에서의 효과크기는 따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또한, 김기현(2015)은 대학에서의 진로 교과목에 효과를 검증한 총 15편을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전체 효과크기가 중간크기인 것을 밝혔다( $ES = .556$ ). 종속변인 별로는 진로결정수준( $ES = .69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S = .653$ ), 진로정체감( $ES = .613$ ), 진로준비 행동( $ES = .596$ ) 등의 효과크기는 밝혀졌으나 진로장벽에서의 효과크기는 밝혀진 바 없다. 그 외로 최근,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총 23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중점을 두고 분석한 손강숙과 정소미(2019)는 전체 효과크기가 큰 것을 밝혀냈다( $ES = 1.39$ ). 이러한 시도는 실제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미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따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시점에 진로장벽에서 나타나는 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메타분석을 실시하는데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행연구가 누적됨에 따라 진로장벽에 대한 세부적 연구도 시도되었다. 예컨대, 조경주(2018)는 대학생 진로장벽과 관련변인 연구의 총 101편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주로 다루어진 변인의 효과크기를 밝혔다. 그 가운데 진로 스트레스( $ES = .721$ ), 진로태도성숙( $ES = -.657$ ), 진로정체감( $ES = -.573$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S = -.488$ )이 진로장벽에서의 효과가 큰 것이 밝혀졌다. 다만, 진로장벽에 효과적으로 입증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따로 밝혀내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진로장벽에서의 진로중재프로그램 효과를 메타분석을 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최근에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장벽에서 나타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총 11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이 수행되었다(선곡유화, 서우석, 2019). 그 결과, 부적으로 큰 효과크기가 검증되었다( $ES = -1.418$ ,  $U_s = 92\%$ ). 이와 같은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메타분석 수행을 통해 일반화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근거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장벽에서 나타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하는 메타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로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수집 및 선정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서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관련 선행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합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은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요인에서 지각되는 맥락적 방해물이라는 개념 하에 개인이 소속하는 사회적 특성과 독특한 진로발달의 양상 등이 고려되어야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선행연구에 한하여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 1) 연구 대상 선정 기준

이 연구는 Jackson(1980)이 제안한 메타분석 절차인 자료 수집, 자료 선정, 자료 코딩, 결과 분석, 자료 해석, 결과 작성의 총 6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과 선정 과정에서 Wood과 Mayo-Wilson(2012)이 제안한 기준(PICOS; population/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 이하 PICOS로 표기함)을 준수하였다(예, 김수영 외, 2011; 박완주, 박신정, 황성동, 201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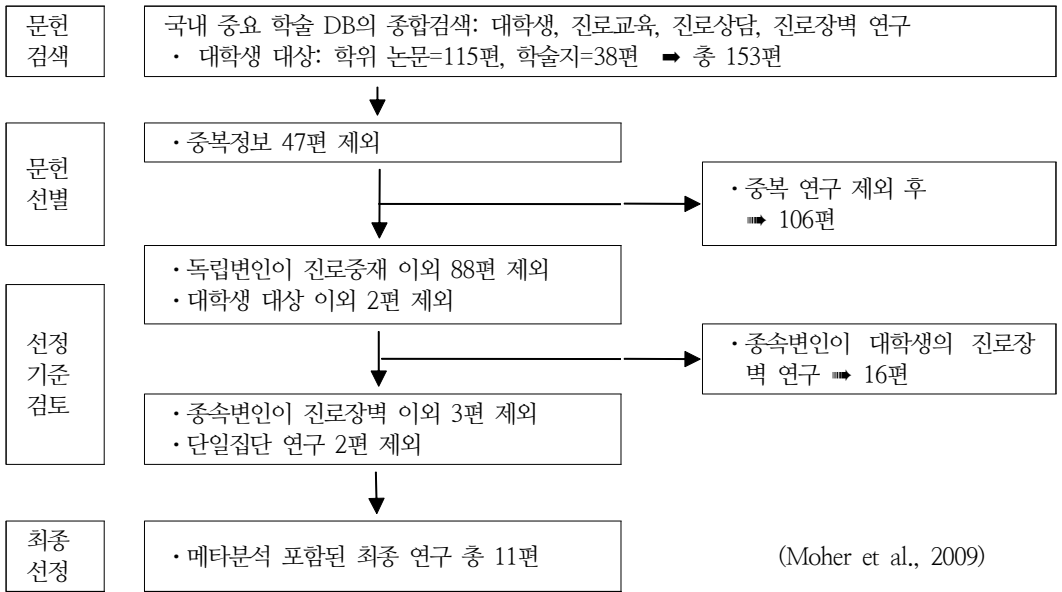
이 연구는 PICOS 기준, 연구대상자(P)는 대학생, 개입방법과 프로그램(I)은 진로장벽 감소 진로중재프로그램으로 교육적 방법과 집단상담 방법으로 개입된 연구로 국한하였다. 비교집단(C)은 진로중재프로그램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중재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의 중재결과(O)는 진로장벽이며, 연구 설계(S)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experimental design)였다.

##### 2) 자료 선정 과정

대학생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물을 메타분석 대상으로 수집하기 위해 Moher와 동료들(2009)의 최종 연구 선정과정(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lowchart, 이하 PRISMA로 표기함)에 입각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2019년 6월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와 석·박사 학위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출판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료 수집에 사용된 검색어는 ‘진로교육,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진로장벽, 대학생, 청소년’ 등이었다.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RISS로 표기함, <http://www.riss.kr>)를 활용하였다. RISS는 교보문고, 누리미디어, 학술교육원, 학지사, 한국학술정보, 코리아스칼라 등 국내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통합검색이 가능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자료 수집 및 선정 절차(PRISMA flowchart)

이 연구에서는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위 논문과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이외의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의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등은 제외하였다.

1차 검색 결과, 대학생 대상의 관련 연구는 학위논문 115편, 학술지 38편, 총 153편이 검색되었다. 그 가운데 중복 정보는 1차적으로 제외(47편)하고 총 106편의 연구 주제를 확인한 뒤, 초록,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PRISMA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이 진로중재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개입 전후에 표준화된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고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치(사례 수, 평균 및 표준편차 등)를 밝힌 연구를 선정하였다(88편 제외). 둘째, 대학생 대상의 연구만을 포함하였고(2편 제외), 셋째, 종속변인은 진로장벽을 포함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3편 제외). 즉, 다른 종속변인과 함께 진로장벽이 설정된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끝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개발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단일집단 연구 2편 제외).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연구는 최종적으로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판된 문헌 총 11편이 선정되었다. 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연구의 특성인 논문 유형, 연구 대상의 성별, 학년, 참여 집단 별 인원, 중재 유형, 운영 횟수, 회기 당 운영시간 및 사전 요구조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메타분석 최종 선정 논문 목록 및 특성

저자 (년도)	논문 유형	연구대상		진료중재 프로그램	
		성(학년)	EG/CG (n)	유형	횟수(분)
1 김봉환 (2007)	학술지	여	20/20 (40)	집단상담	7 (120)
2 김은희, 김봉환 (2009)	학술지	여 (1)	88/88 (176)	집단상담	8 (120)
3 김수현 (2010)	학술지	남녀(2~4)	30/115(145)	집단상담	8 (120)
4 김종운, 박성실 (2010)	학술지	여 (-)	10/10 (20)	집단상담	8 (120)
5 손애라 외 (2011)	학술지	여 (2~4)	12/10 (22)	집단상담	10 (180)
6 이정민 (2011)	학위	남녀(2~4)	75/75 (150)	교육	15 (180)
7 권은경 (2013)	학위	남녀(1~4)	17/17 (34)	집단상담	10 (120)
8 김수란, 정미경 (2014)	학술지	남녀(1~4)	75/92 (167)	교육	15 (180)
9 정은경, 변상해 (2014)	학술지	남녀(2~4)	30/30 (60)	집단상담	10 (110)
10 최미정 (2017)	학술지	남녀(1)	156/113(269)	교육	13 (60)
11 하 정 (2018)	학술지	여 (3, 4)	8/8 (16)	집단상담	12 (90)

주) (-)=무보고; EG(experimental group)=실험집단; CG(control group)=통제집단

### 3) 분석대상 논문의 질 평가

최종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된 총 11편에 대한 질 평가 절차를 거쳤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이유는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고 전체 효과크기와 조절 효과 크기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영 외, 2011; 박완주 외, 2015).

이 연구에서는 Shea et al.(2009)이 제안한 평가도구(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r systemic review, 이하 AMSTAR로 표기함)의 내적타당도에 준수하여 종합적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세부적 평가 내용은 (1) 연구주제와 선택기준은 사전에 결정되었는가, (2) 대상 연구 채택과 자료 수집, 선정 과정 등 최소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되었는가, (3) 자료 수집에 적합한 검색어를 활용하고 최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는가, (4) 출판 유형과 언어로 인하여 배제된 문헌은 없었는가, (5) 채택된 문헌과 배제된 문헌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6) 채택된 문헌의 특성은 제시되었는가, (7) 선정된 연구에 대한 질 평가 결과는 보고되었는가, (8) 선정된 연구의 질은 연구결과에 적절히 해석되어 있는가, (9)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 결과는

적절히 합성되었는가, (10) 출판 오류 판정은 실시되었는가, (11) 선정된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었는가의 11항목으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코딩 단계에서는 메타분석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진 교수와 통계학 전공 연구자 각 1인의 자문을 받은 후, 이 연구팀 간에서 평가하고 일치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자 간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한 해당 항목은 다시 살펴보고 연구자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연구자 간의 동의가 성사할 경우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판정하였다.

#### 4) 코딩 및 자료 분석

총 11편의 분석 자료는 저자, 년도, 논문 유형(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프로그램 유형(진로교육, 진로집단상담), 중재 총 횟수 및 회기 당 시간,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문항 수, 전체 신뢰도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 연구에서 개발된 자료 분석틀을 준거로 코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질적 효과크기와 중재효과의 오류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통합하기 위하여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 3과 STATA ver. 13.1의 메타분석 전용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각 연구의 기본 통계치(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를 취합하고 표준화된 평균차 효과크기와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포함된 연구의 표본 크기가 작은 사례를 감안하여 모든 효과크기는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효과크기(correcte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인 Hedges'  $g$ 를 산출하였고 95% 신뢰수준을 제시하였다. 각 효과크기의 가중치는 분산의 역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집단구성원 성별, 출판년도, 논문 유형, 프로그램 유형, 운영 특징의 중재 횟수 및 회기 당 시간 등에 따른 효과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메타변량분석(ANOVA)과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판 오류(publication bias)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간 오류 분석은 우선, forest plot을 통해 효과크기의 통계적 이질성을 시각적으로 평가하고 이어서  $Q$  값(전체 관찰된 분산)을 산출하고 카이스퀘어를 검증하고  $I^2$  값(전체 관찰된 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을 확인하였다.  $Q$  값의 유의 확률은 .10 이하,  $I^2$  값이 25%일 경우 낮은 수치, 50%는 중간 수치, 75%는 높은 수치로 판단되고, 90%를 넘으면 이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Higgins & Green, 2008; Higgins et al., 2003). 그리고 연구 간의 분산과 오차를 고려하여 평균효과크기의 산출방식은 무선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 무선효과모형은 신뢰구간이 크고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Rosenthal, 1991).

## IV. 연구 결과

###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나타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2019년 9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을 수집한 결과 최종, 총 11편이 선정되었다. 체계적 절차로 선정된 분석 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선정된 논문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 항목 논문 편수 (%) [n=11]		
연구 대상(성)	•여대생 5 (45.5)	•남녀학생 혼합 6 (54.5)	
출판년도	•2007-2013 7 (63.6)	•2014-2019 4 (36.4)	
논문 유형	•학술지 9 (81.8),	•학위 논문 2 (18.2)	
중재	유형	•진로교육 3 (27.3)	•진로집단상담 8 (72.7)
	총 횟수	•7-9회 4 (36.4)	•10회 3 (27.3)      •12-15회 4 (36.4)
	시간(분)	•60-100분 2 (18.2)	•101-120분 6 (54.5)      •180분 3 (27.3)
전체 참여 인원	•10-50명 5 (45.5)	•51-150명 3 (27.3)	•151명 이상 3 (27.3)
측정 도구	유형	•진로장벽검사 3 (27.3)	•진로탐색 장애검사 5 (45.5)
		•진로결정 장애검사 2 (18.2)	•진로장애검사 1 (9.1)
	문항 수	•20-30 문항 3 (27.3)	•31-57 문항 이상 8 (72.7)

첫째, 연구 대상은 모두 대학생이며 성별은 여대생 연구 5편(45.5%), 남녀혼합 연구 6편(54.5%)이었다. 둘째, 출판연도는 2007년부터 2013년이 7편(63.6%),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4편(36.4%)이었다. 논문출판 유형은 학술지논문 9편(81.8%), 학위논문 2편(18.2%)이 포함되었다. 셋째, 중재프로그램 유형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3편(27.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8편(72.7%)이었고 총 횟수가 7~9회 4편(36.4%), 10회 3편(27.3%), 12~15회 4편(36.4%)이었다. 그리고 중재 회기 당 시간은 60~100분 2편(18.2%), 101~120분 6편(54.5%), 180분 3편(27.3%)이었다. 넷째, 연구 참여 인원은 10~50명 5편(45.5%), 51~150명 3편(27.3%), 151명 이상 3편(27.3%)이었다. 다섯째, 척도는 손은령(2001)의 여대생용 진로장벽검사 3편(27.5%), 김은영(2001)의 한국대학생용 진로탐색장애검사 5편(45.5%),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진로결정 장애검사 2편(18.2%), 김수현(2007)의 진로장애검사 1편(9.1%)이 활용되었고, 문항 수는 20~30문항 3편(27.3%), 31~57문항 8편(72.7%)이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은 모두 내적, 외적 장벽을 측정하는 도구가 활용되었다.

## 2. 분석 자료에 대한 질 검증

이 연구에서 선정된 분석 연구물의 질 검증은 국내 메타분석 연구(예, 박완주 외, 2015; 선곡유화, 서우석, 2019 등)에서 권장하는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2011, 이하 SIGN로 표기함)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총 9 항목에 관해서 우선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았음, 보고되지 않았음, 적용 불가의 6단계로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양호함, 미비함, 무보고로 판정하였다(〈표 5〉 참조).

〈표 5〉 메타분석 자료의 질 평가

평가 기준	연구											
	1	2	3	4	5	6	7	8	9	10	11	
연구문제가 적절하고 명확하다.	Y	Y	Y	Y	Y	Y	Y	Y	Y	Y	Y	Y
실험집단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Y	Y	Y	Y	Y	Y	Y	Y	Y	Y	-	Y
모든 피험자는 무작위로 할당된 집단단위로 분석되었다.	Y	Y	Y	Y	Y	-	Y	Y	Y	Y	Y	Y
실험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Y	-	-	-	-	-	Y	Y	-	Y	Y	Y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일한 차이는 실험처치만이다.	Y	Y	Y	Y	Y	Y	Y	Y	Y	Y	Y	Y
모든 결과는 표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Y	Y	Y	Y	Y	Y	Y	Y	Y	Y	Y	Y
은폐 방법은 적절히 사용되었다.	Y	-	-	-	-	-	Y	Y	-	-	-	-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실험자와 피험자에게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	-	-	-	-	-	-	Y	-	-	-	-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탈락한 표본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다.	-	-	Y	Y	-	Y	Y	-	Y	-	Y	Y
질적 평가에 대한 종합	++	+	+	+	+	+	++	++	+	+	+	++

주<sup>1</sup>) Y= 예; N= 아니요; -= 무보고; + = 일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이 변경될 정도가 아님; ++ = 모든 기준 또는 대부분의 기준이 충족되어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주<sup>2</sup>) SIGN(2011); 박완주 외(2015); 선곡유화, 서우석(2019) 등을 참조하고 이 연구팀이 재구성하였음

평가 결과, 첫째, 11편의 연구 모두 문제가 명확히 기술되었고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10편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할당된 집단에서 표집되었고, 셋째, 10편에서 실험집단에 대한 피험자의 할당이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실험 전에 유사도를 검증하고 명시한 연구는 5편인 반면, 6편은 두 집단의 각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히 동질성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무보고(-)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11편 모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유일한 차이는 진로중재프로그램만으로 확인되었고, 여섯째, 11편의 연구 결과는 모두 표준적으로 유효하고 신뢰도가 확보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일곱째, 은폐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 연구는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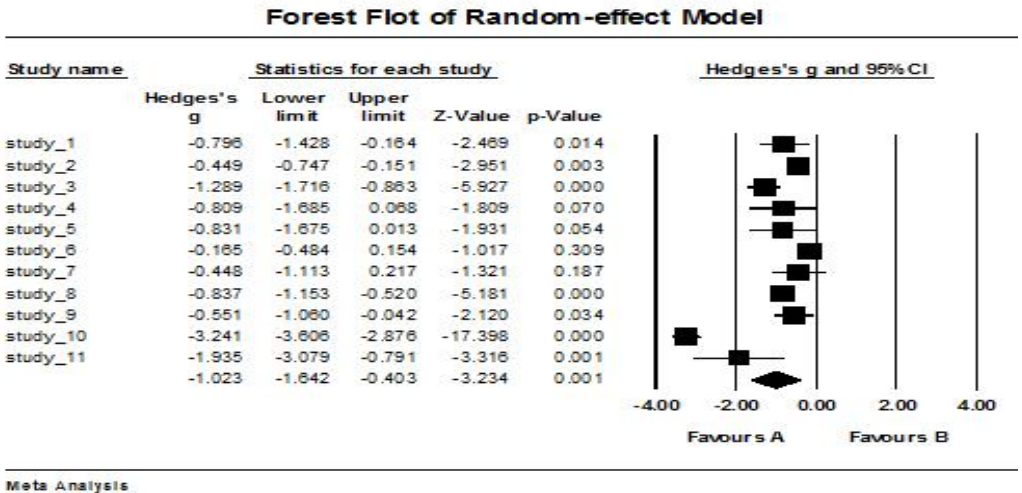
여덟째, 피험자와 조사자 간의 맹검법이 적절히 유지된 연구는 1편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10편은 명확한 보고가 없었다. 아홉째,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탈락한 표본을 명시한 연구는 6편인 반면, 명확한 보고가 없는 연구는 5편이었다. 명시하지 않은 연구들은 탈락이 없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으나 무보고로 판정하였다.

이상의 분석 대상의 연구에 대한 질 평가를 종합한 결과 필수항목 기준을 모든 또는 대부분 충족되어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일부 필수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크게 변경될 정도는 아님(+), 그리고 대부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선정된 자료의 36.4%=(++) 63.6%=(+)로 분석 대상 연구의 질 수준은 대체로 ‘이 연구 결론을 변경시킬만한 위험은 매우 낮다’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 3. 전체 평균 효과크기

선정된 연구를 대상으로 두 집단의 사후 차이의 평균, 표준편차, 표본크기를 이용하여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효과크기인 Hedges'g를 산출한 결과의 forest plot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

표준화된 효과크기(ES)  $g = -1.023 (p < .001)$ 로 큰 효과크기( $\geq .8$ , Cohen, 1988)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lower-limit confidence interval 이하 LLCI) =  $-1.642$ , 상한 값(upper-limit confidence interval 이하 ULCI) =  $-.403$  사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서 효과가 유의한



것이 입증되었다. 산출된 효과크기를 비중복백분위수(percentiles of non overlap)로 변환하면  $d_s = 84\%$ 이며, 이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가 비교집단보다 34%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ipsey & Wilson, 2001). 그리고 집단 간의 성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집단의 성공률이 27% 일 때, 실험집단의 성공률은 72%로 나타났다(Rosenthal & Rubin, 1982).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교육적 접근을 활용한 진로중재프로그램 3편 중, 2편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나는 진로와 창업프로그램(김수란, 정미경, 2014)이 진로장벽에 큰 효과크기가 입증되었으며( $ES = -.84$ ,  $LLCI = -1.15$ ,  $ULCI = -.52$ ,  $p < .000$ ), 특히 진로개발 프로그램(최미정, 2017)은 진로장벽에서의 효과크기가 전체 효과크기보다 확연히 컸다( $ES = -3.24$ ,  $LLCI = -3.61$ ,  $ULCI = -2.87$ ,  $p < .000$ ).

한편, 집단상담 접근을 도입한 연구 8편 중, 5편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선 진로장벽에 효과크기가 중간 크기로 검증된 프로그램은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은희, 김봉환, 2009,  $ES = -.45$ ,  $LLCI = -.75$ ,  $ULCI = -.15$ ,  $p < .003$ )과 벤처창업진로상담 프로그램(정운경, 변상해, 2014,  $ES = -.55$ ,  $LLCI = -1.06$ ,  $ULCI = -.04$ ,  $p < .034$ )이었다. 그리고 진로장벽에 효과크기가 큰 크기로 검증된 프로그램은 집단 진로상담프로그램(김봉환, 2007,  $ES = -.80$ ,  $LLCI = -1.43$ ,  $ULCI = -.16$ ,  $p < .014$ ), 진로장애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수현, 2010,  $ES = -1.29$ ,  $LLCI = -1.72$ ,  $ULCI = -.86$ ,  $p < .000$ ), 진로장벽대처 역량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순이었다(하정, 2018,  $ES = -1.94$ ,  $LLCI = -3.08$ ,  $ULCI = -0.79$ ,  $p < .001$ ).

반면, 취업전략 프로그램(이정민, 2011,  $ES = -.17$ ,  $p < .309$ ), 진로장벽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종운, 박성실, 2010,  $ES = -.81$ ,  $p < .070$ ), 사회인지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손애라, 외, 2011,  $ES = -.83$ ,  $p < .054$ ),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권은경, 2013,  $ES = -.45$ ,  $p < .187$ )은 95% 신뢰구간의 0이 포함되어 진로장벽에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4.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 및 조절효과 분석

앞서 이 연구 분석 자료의 평균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전체 연구의 효과크기와 일관성을 지니며,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동질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산출된 내용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진로중재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및 이질성

k	outcome			95%CI		Z(p)	heterogeneity	
	ES	se	variance	Lower	Upper Limit		I <sup>2</sup>	Q(p)
11	-1.023	.316	.100	-1.642	~ -.403	-3.23(.001)	94.89	195.84(.000)

먼저,  $Q$  값(195.84,  $p < .000$ )을 확인하고 연구 간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I^2$  값(94.89%)을 확인한 결과, 각 연구 간의 이질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large heterogeneity, 75~100%)으로 판단되었다(Higgins & Green, 2008).

이에 따라 연구 수준의 변수들을 조절변수(moderators)로 하여 메타 ANOVA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큰 이질성에 대한 해석을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성별, 출판년도, 논문 유형, 중재 유형, 중재 회기 총 횟수, 회기 당 시간(분)을 조절변수로 채택하였다. 먼저 범주형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첫째,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Q=12.4$ ,  $p < .000$ ). 하위 집단별 효과크기에 관해서 여대생 대상 연구(5편)의  $ES = -.928$ , 남녀혼합 대학생 대상 연구(6편)의  $ES = -1.096$ 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큰 효과크기로 입증되었다(Cohen, 1988). 다만,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 여대생 대상 연구의  $Z = -1.83$ ( $p < .067$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남녀혼합 대학생 대상 연구의  $Z = -2.48^*$ ( $p < .01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질성이 높았다( $I^2 = 97.2$ ).

<표 7>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와 하위 집단 간의 이질성

moderators	k	Hedges' $g$	95% CI		Z	p	heterogeneity	
			Lower	Upper Limit			$I^2$	$Q(p)$
성별	여대생	5	-.928	-1.921 ~ .066	-1.83	.067	43.41	12.42
	남녀	6	-1.096	-1.964 ~ -.229	-2.48	.013	97.17	(.000)
출판 년도	2007~2013	7	-.677	-1.382 ~ .029	-1.88	.060	68.43	70.42
	2014~2019	4	-1.628	-2.565 ~ -.692	-3.41	.001	97.42	(.000)
논문 유형	학술지 논문	9	-1.188	-1.872 ~ -.505	-3.41	.001	95.02	34.68
	학위 논문	2	-.301	-1.726 ~ 1.124	-.41	.679	0.00	(.000)
중재 유형	진로집단상담	8	-.866	-1.635 ~ -.096	-2.20	.028	55.12	15.07
	진로교육	3	-1.410	-2.615 ~ -.204	-2.29	.022	98.79	(.000)

둘째, 출판년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Q=70.42$ ,  $p < .000$ ). 하위 집단별에 관해서 최근 5년간 연구와 그 전 연구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2007~2013년도 연구(7편)의  $ES = -.677$ 로 중간 크기, 2014~2019년도 연구(4편)의  $ES = -1.628$ 로 큰 효과크기로 판정된다(Cohen, 1988). 집단 간의 차이( $\Delta ES = .951$ )를  $U_i$  로 변환하면 83%에 해당되며, 이는 2014~2019년도 연구에서 나타나는 효과크기가 33%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질성에 관해서 2007~2013년도 연구의  $Z = -1.88$ ( $p < .06$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2014~2019년도 연구의  $Z = -3.41^{**}$ ( $p < .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2 = 97.4$ ).

셋째, 논문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Q=34.68$ ,  $p < .000$ ). 하위 집단별

효과크기에 관해서 학술지논문(9편)의  $ES = -1.188$ 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고, 학위논문(2편)의  $ES = -.301$ 로 작은 효과크기로 입증되었다(Cohen, 1988). 이 집단 간의 차이( $\Delta ES = .887$ )는  $U_s = 82\%$ 로 학술지논문의 효과크기가 32%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질성 검증 결과, 학술지논문의  $Z = -3.41^{**}$  ( $p < .001$ )로 유의하였고 이질성은 높았다( $I^2 = 95.02$ ). 그 반면, 학위논문의  $Z = -.41$  ( $p < .67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재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Q = 15.07$ ,  $p < .000$ ). 그리고 하위 집단별 효과크기는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8편)의  $ES = -.866$  ( $Z = -2.29^*$ ,  $p < .022$ ), 진로교육 프로그램(3편)의  $ES = -1.41$  ( $Z = -2.20^*$ ,  $p < .028$ )로 나타나 각각 큰 효과크기로 평가되었으며(Cohen, 1988),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 $\Delta ES = .544$ ,  $U_s = 69\%$ )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19%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의 각 연구 간의 이질성은 높은 것이 밝혀졌다( $I^2 = 98.8$ ).

그리고 연속형 변인의 중재 회기 총 횟수와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연속형 조절효과 분석

moderators	Coefficient	se	t	p	95% LLCI~ULCI
중재 회기 총 횟수	-.143	.068	-2.11	.067	-.299 ~ .013
중재 회기 당 시간	.02	.005	3.91**	.004	.008 ~ .032

주) sig\*\*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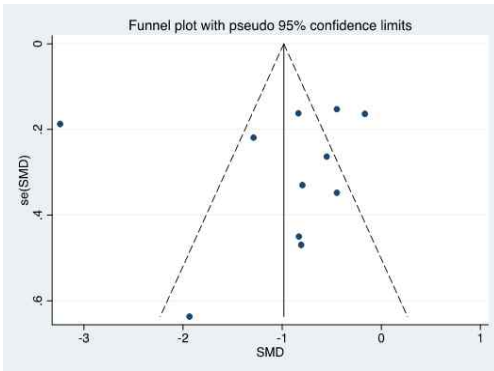
설정된 조절변수의 중재 회기 총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t = 2.11$ ,  $p < .067$ ), 중재 회기 당 시간( $t = 3.91^{**}$ ,  $p < .004$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재 회기 총 횟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13회( $ES = -3.241$ ), 12회( $ES = -1.935$ ), 8회( $ES = -.84$ ), 7회( $ES = -.796$ ), 10회( $ES = -.572$ ), 15회( $ES = -.501$ ) 순으로 큰 효과크기가 검증되었고 집단 내의 동질성은 중재 회기 총 회수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 130.677$ ,  $df = 5$ ,  $p < .001$ ). 한편, 중재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60분( $ES = -3.241$ ), 90분( $ES = -1.935$ ), 120분( $ES = -.759$ ), 180분( $ES = -.571$ ), 110분( $ES = -.551$ ) 순으로 큰 효과크기가 검증되었으며, 동질성 검증 결과,  $Q = 126.930$  ( $df = 4$ ,  $p < .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중재 회기 당 시간 차이는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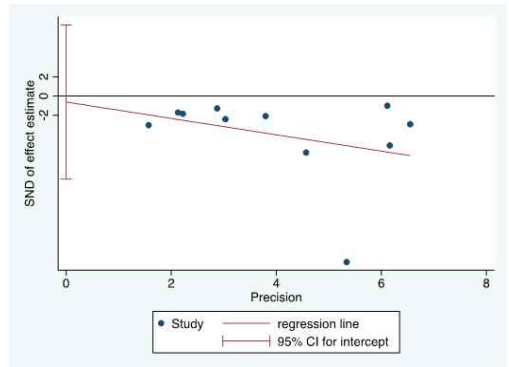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경험적 근거로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 간의 이질성은 성별, 출판년도, 논문 유형, 중재 유형, 중재 회기 당 시간의 차이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 출간오류 분석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출간오류(publication bias)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의 funnel plot을 통해 시각적 확인 분석을 통해 비대칭을 제기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의 표본크기가 작은 연유로 비대칭에 대한 검증은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Egger's의 회귀분석을 통해 표본크기와 효과 크기의 관계(small-study effect, 표본오류 등)를 고찰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3] Funnel plot



[그림 4] Egger's regression test

그 결과  $bias = -.63$  ( $SE = 3.55$ ,  $t = -.18$ ,  $p = .86$ ), 95% 신뢰구간(CI,  $-8.67 \sim 7.42$ )사이에서 0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의 효과크기와 표본크기 간의 비대칭은 유의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출판편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Egger et al. 1997).

##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2019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출판된 선행연구 가운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실천적 유용성을 판단하고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차 검색으로 도출된 153편의 문헌을 이 연구의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토대로 판정하고 최종 총 11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고 변수별 효과크기를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출판년도는 2007~2013년도 연구 7편, 2014~2019년도

연구 4편, 출판유형은 학술지 논문 9편, 학위논문 2편이었다. 그리고 참여집단의 성별은 여대생 대상 연구 5편, 남녀 대학생 대상 연구 6편이 수행되었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표본 수는 8~156명, 전체표본 수는 16~269 명이었다.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감소를 위한 진로중재프로그램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3편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8편이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입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서의 평균  $ES(g) = -1.02(95\% \text{ CI: } -1.64 \sim -.40, p < .009)$ ,  $U_s = 84\%$ 로 나타나 Cohen(1988)의 효과크기 기준에 의거하면, 부적으로 큰 효과크기로 판정되었다. 이 결과는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장벽에서 나타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선행연구(선곡유화, 서우석, 2019)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현재까지 검증된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대학생의 진로장벽에서의 효과만을 중점적으로 밝혔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앞으로 지각하게 된 진로장벽을 사전에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의 평균효과크기에서 나타난 이질성( $I^2 = 94.89\%$ )은 Higgins & Green(2008)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큰 이질성(75~100%, large heterogeneity)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연구 간의 이질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메타 ANOVA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근거로 분석대상의 연구 간의 이질성은 다음 조절변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여대생 대상의 연구와 남녀혼합 대상의 연구 간의 차이가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었으며, 출판년도와 논문의 유형에 따른 차이도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재프로그램의 유형의 차이도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중재프로그램의 개입 회기 수 차이는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반면, 회기 당 시간 차이는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이유는 조절변인으로 설정된 성별, 출판년도, 논문 유형, 중재 유형, 중재 회기 당 시간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연구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입증된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이 연구에서는 여대생 대상의 연구보다 남녀혼합 대상 연구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고( $ES = -1.096$ ) 동질성은 남녀혼합 연구만이 유의한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강윤경, 선혜연, 2017)결과와는 상이하나, 중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김영아, 김진숙, 2016)와 대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손강숙, 정소미, 2019)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종속변인에 따른 중재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내용의 차이가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장벽 지각감소를 목표로 하는 진로

중재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에 차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목표를 두고 대처방법들을 구안하고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남녀혼합 집단으로 구성하여 동성집단보다 개인적 특성과 진로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이해, 격려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판 년도에 관해서는 최근 5년간의 연구와 최근 5년 이전의 연구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7~2013년도 사이의 연구보다 2014~2019년도 사이의 연구의 효과크기가 현저히 큰 것이 밝혀졌으며( $ES = -1.628$ ), 연구 간의 동질성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출판 년도에 대하여 빈도분석 결과만을 제시해 온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출판 년도에 따른 효과크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진로중재프로그램 관련연구의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재유형별 효과 크기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크기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질성( $I^2$ )이 98.8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이질성( $I^2 = 55.1$ )보다 더 컸다. 실제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효과크기가 이정미(2011)연구의  $ES = -.165$ 부터 최미정(2017)연구의  $ES = -3.241$ 까지 효과크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간의 효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관련 연구가 축적된 후에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재 회기 당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60분, 90분, 120분, 180분, 110분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강윤경, 선혜연, 2017)와 중·고등학생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김영아, 김진숙, 2016)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출간오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연구의 출간오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다( $bias = -.63$ ,  $SE = 3.55$ ,  $t = -.18$ ,  $p = .86$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메타분석 연구자(예, 김수영 외, 2011; 박완주 외, 2015; Higgins et al., 2003; Moher et al., 2009; 등)가 권장하고 있는 PRISMA 기준에 따라 엄선하였다는 것과 Shea et al.(2009)의 AMSTAR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의 대한 질 평가 절차를 SIGN(2011)에 의거하고 수행하였다는 점이 표본추출 오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기법을 통해 기존에 단편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수량적으

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종합적 질 평가에서 얻은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 대학생을 위한 진로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나 중장년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메타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표본 간의 높은 이질성을 설명하는 조절변인이 성별과 프로그램의 회기 당 시간으로 밝혀졌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외에 변인(예, 프로그램 운영자의 역량, 연구대상의 진로 발달 수준,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타당도 검증 여부 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이 연구의 출간오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표본이 작은 연유로 효과크기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연구가 향후 누적된다면 진로장벽 지각에 나타나는 진로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재차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표시는 메타분석 대상의 연구임)

- 강윤경, 선혜연(201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1), 1-20.
- 교육부(2012). **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은경(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김기현(2015). 대학 진로 교과목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봉환(2007). 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지각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4), 1453-1465.
- \*김수란, 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 김수영, 박지은, 서현주, 서혜선, 손희정, 신채민, 이운재, 장보형, 허대석(2011). **NECA 체계적 문헌 고찰 매뉴얼**. NECA 연구방법 시리즈, 1-287.
- 김수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57-1078.
- 김수현(2008). 진로장애 감소를 위한 집단지도 프로그램. **사회과학연구**. **충북대학교** 25(2), 83-121.
- \*김수현(2010) 진로장애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인간이해**, 31(2), 167-191.
- 김영아, 김진숙(2016). 중·고등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8), 359-383.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희, 김봉환(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14), 2225-2239.
- \*김종운, 박성실(2010). 진로장벽탐색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9(3), 209-230.
- 김희은, 이미현, 김인규(2014). 국내 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및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4), 1441-1456.



- 박순주(2012).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259-267.
- 박유리, 안세영, 최보영(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3), 381-397.
- 박완주, 박신정, 황성동(2015). 한국 학령기 ADHD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중재의 효과 연구: 메타분석. **JKAN(대한간호학회지)**, 45(2), 169-182.
- 선곡유화, 서우석(2019). 청소년 대상의 진로중재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6(8), 287-314.
- 손강숙, 정소미(2019). 대학생 대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1), 77-101.
- 손승연, 이종연(2017).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3), 149-170.
- \*손애라, 유순화, 윤경미(2011). 사회인지적 진로집단 상담이 공과대학 여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職業教育研究**, 34(3), 151-170.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은령, 손진희(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신우종(2015).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개요. **Hanyang Med Rev**, 35, 9-17.
- \*이정민(2011). 대학생의 진로교육이 진로장벽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이지은, 이제경(2015).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6(5), 171-192.
- 전미영 (2013).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운경, 변상해(2014). 벤처창업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벤처창업연구**, 9(4), 111- 118.
- 정운경, 나현미, 이지은, 임해경(2017).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2017-15].
- 조경주(2018). 대학생 진로장벽과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조영아, 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29-150.
- \*최미정(2017). 진로개발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8), 327-334.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1), 167- 180.

-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 통계**. [cited 2019. 26. June].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 \*하정(2018). 기업 진출을 희망하는 여대생을 위한 진로장벽대처 역량강화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489~512.
- 한국고용정보원(2004).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서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2011).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행자용 매뉴얼**. 서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2015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201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지선, 계은경(2016). 여성 진로장벽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진로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225-250.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42, 125-159.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2005). 진로 상담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Albert, K. A., & Luzzo, D. 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4), 431-436.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Hoboken, NJ: Wiley-Blackwell.
- Brown, D. (1985). Career counseling: Before, after, or instead of personal counseling?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3(3), 197-20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es for the soci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rey, G.(2005).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Pacific Grove, CA: Wads Worth.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McGraw-Hill.
- Egger M, Smith G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15(7109), 629-634.
- Ellis, A.(2000). *The rational-emotive and behavioral therapy*. New York: Albert Ellis Institute.
- Green, B. and J. Hall. (1984).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37-53.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5th ed.). New York, Mckay.

- Higgins JPT, Green S, editors. (2008).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London, UK: The Cochrane Collaboration. Available from <http://handbook.cochrane.org/>.
- Higgins, J. P., Thompson, S. G., Deeks, J. J., & Altman, D. G.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es.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27*(7414), 557-560.
- Jackson, G. (1980). Methods for integrative review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 438-48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ipsey, M., & Wilson, D.(2001).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Littell, J. H., Corcoran, J., & Pillai, V. (2008).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Whirter, B. T. (1997). Loneliness,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460-469.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The PRISMA Group.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 Intern Med*, *151*(4), 264-269. [PMID: 19622511].
- Rosenthal, R. (1991). *Meta-analytic procedures for social research*. London: Sage.
- Rosenthal, R., & Rubin, DB. (1982). A simple, general purpose display of magnitude of experimental effe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2), 166-169.
-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50, 2011). *A guideline developer's handbook*. Edinburgh, UK: Author. Available from <http://www.sign.ac.uk/guidelines/fulltext/50/index.html>.
- Shea, B. J., Hamel, C., Wells, G. A., Bouter, L. M., Kristjansson, E., Grimshaw, J., Henry, D. A. & Boers, M. (2009). AMSTAR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2*, 1013-1020.
- Super, D.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Swanson, J. L.,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Measur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44-361.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Wessler, R. A. (1986). In A. Ellis & R. Griger (Eds.),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2). New York: Springer.
- Wood, S., & Mayo-Wilson, E. R. (2012). School-Based Mentoring for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2*(3), 257-269.

\* 논문접수 2019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9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11월 2일 / 게재승인 2019년 11월 14일

\* 선공유학: 일본 센조쿠학원음악대학에서 예술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재학 중, BK21+글로벌 다문화교육 연구원을 거쳤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술영역은 다문화 교육, 다문화 심리(다문화 심리검사 도구 개발 등), 다문화 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 다문화 학생의 진로교육 등이다.

\* E-mail: yukaqua115@gmail.com

\* 서우석: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와 대학원 진로교육상담전공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술영역은 학교 진로교육,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진로교육 국제비교연구, 진로교육기관 컨설팅 등이다.

\* E-mail: sws@ginue.ac.kr

## Abstract

#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Career Interven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 on Career Barriers

Seongok, Yuhoa<sup>\*</sup>Seo, Wooseok<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career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 using meta-analysis. For this purpose,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http://www.riss.kr>), which is integrated with domestic academic databases, has been searched and related data were collected. In particular, data collection and selection research was based on Wood & Mayo-Wilson (2012)'s PICOS(Population or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 criteria. The data of this study are as of September 2019, 9 domestic journals and 2 theses which analyzed the effects of career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 The effect size of the whole career barrier was analyzed using Comprehensive Meta-Analysis & STATA softw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overall average effect of career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 was Hedges'  $g = -1.023$  (95% CI:  $-1.642 \sim -.403$ ), and the  $U_s$  index was 84 percentil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College Student,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Intervention Program, Career Education, Career Counseling, Meta-Analysis

\* First author, Researche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